

Imagine dragons



이매진 드래곤스 (Imagine Dragons)는 2008년 미국 네바다 주 라스 베가스에서 결성한 얼터너티브 록 밴드로서 보컬 댄 레이놀즈(Dan Reynolds), 베이스 벤 맥키(Ben McKee), 기타 웨인 서몬(Wayne Sermon), 드럼 다니엘 플라츠맨(Daniel Platzman)로 구성된 밴드이다.

2008년에 보컬 댄 레이놀즈는 유타주에서 밴드 활동을 하던 중 드러머 앤드류 톨먼의 소개로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웨인 서몬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웨인 서몬은 같은 대학을 나온 벤 맥키를 베이시스트로 밴드에 합류시키며 Imagine Dragons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컬인 댄 레이놀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버클리 음대 출신이다. 보컬 댄 레이놀즈의 경우에는 FBI 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던 중이었지만 결국 그는 밴드 보컬을 선택한 재미있는 이력이 있다.

초기 Imagine Dragons는 'Hell and Silence' 같은 EP를 발매하며 지역에서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발판으로 댄 레이놀즈의 고향인 라스베이거스로 옮겨가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을 하던 중, 지역 락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 밴드의 보컬이 아파서 급작스럽게 못 나오게 되자 26,000명에 가까운 관중들 앞에서 대타로 나서게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

Imagine Dragons는 유명 프로듀서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직전에 드러머였던 앤드류 톨먼이 자리에서 빠지게 된다. 이를 벤 맥키가 역시 버클리 음대를 같이 다닌 다니엘 플라츠맨을 드러머로 밴드에 합류시킴으로써 우리가 아는 Imagine Dragons의 모습이 된다. 그리고 데뷔 앨범 Night Visions이 초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이후로는 승승장구가 이어져, 빌보드 차트 얼터너티브 록 1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최고의 락 앨범 수상 등의 대 성공을 거뒀고, 그에 힘입어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도 하였으며, 당해 그래미 어워드 최고의 락 퍼포먼스까지 수상하는 등 최고로 핫한 밴드로 떠올랐다.

판매량을 보자면 2012년 하반기에 발매된 첫 앨범 Night Visions가 2013년 한 해에 140만 장, 2014년 2월까지 함께 200만 장을 팔았으며, It's time 싱글이 200만 장, Radioactive 싱글이 600만 장, Demons 싱글이 300만 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주제곡으로 'Warriors'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록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는 보컬 댄 레이놀즈의 음악에 관한 개방적인 마인드와 이를 받쳐주는 각 멤버들의 특출난 역량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실제로 보컬 댄 레이놀즈는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밴드가 락밴드의 외형을 갖추긴 했지만 락 음악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즉, 락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장르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보컬인 댄 레이놀즈는 음악의 뜻이 한 곳으로 고정되는 게 싫어서, 공연 때에도 "이 음악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